

Next Energy

AI 컴퓨팅 파워 선물이 온다



주간 주요 기업 주가 변동

- **배터리:** Fluence(-12.7%), 삼성 SDI(-11.2%), 포스코퓨처엠(-10.0%), SK 이노베이션(-9.2%)
- **원자력:** Nuscale(-17.6%), Centrus(-12.9%), Cameco(-11.5%), 두산에너지빌리티(-6.1%)

GPU 임대 가격을 거래하다

CME 와 Silicon Valley Data 는 세계 최초 컴퓨팅 파워 선물 출시를 발표했고, ICE 도 GPU 선물 출시를 예정 중이다. 양대 거래소의 동시 진입 발표로 AI 산업이 금융 시스템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선물 거래 시스템이 GPU 에 직접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GPU 를 직접 인도받는 게 아니라 미래 임대 가격의 등락이 거래될 전망이다.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AI 기업은 매수, 임대료 하락을 우려하는 인프라 업체는 매도해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는 등급화·저장이 어렵고 칩 세대 교체가 빠르다는 점에서, 원유보다는 전력운임 선물에 가까운 현금결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물 거래가 시작된다면 AI 기업의 경쟁력이 비용 헤지·예산 관리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공개 협상에 의존하던 가격 지표가 국제유가처럼 투명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가격 책정 범위는 1) GPU 임대 지수, 2) 토큰 가격, 3) 컴퓨팅 파워·전력·탄소 연동까지 확장될 수 있다. 선물 도입으로 AIDC 수요가 직접 창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격 컨센서스 형성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줄면 신규 착공이 가속화될 수 있고, 컴퓨팅 파워가 거래 가능한 자산이 되면 보험사·연기금 자금이 데이터센터로 유입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전력·탄소와 가격이 연동되면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PPA·전력 선물 헤지 수요까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물 시장은 위험을 분산하는 동시에 증폭시킬 수 있고, 현물 시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지수 신뢰성 검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비용을 선제 고정할 경우, 중소 AI 기업과의 자원 확보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지표 확인용, 중기적으로는 빅테크·데이터센터의 위험 관리 수단, 장기적으로는 컴퓨팅 파워를 자산으로 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원유·구리·전력·해운처럼 본격적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

주간 주요 뉴스

2027년 원전 상시검사 전면 도입

원전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해 연중 검사 가능. 새울 2 호기에 시범 적용 중으로 2027년부터 전 원전에 확대 적용

체코, 자국 내 SMR 3기 건설 추진

영국 롤스로이스 SMR 이 수행할 예정으로 2030 년대 초 착공 목표. 롤스로이스 SMR 의 핵심 기자재 파트너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또한 참여 전망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신왕다 특허 분쟁서 승소

중국 배터리 제조사 신왕다와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을 최종 마무리, 특허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

삼성 SDI, 美 정부에 상호관세 환급 신청

약 수천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신청. LG 에너지솔루션도 약 3,000 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신청해 1,000 억원 이상 환급 완료

주간 지수 및 기업 시가총액 변화

(₩ 조원, 십억달러)	RECENT	증감(%)
KOSPI	8,124	▼6.0
KRX 2 차전지	3,980	▼8.1
KRX 유틸리티	900	▲6.7
LG 에너지솔루션	94	▼5.2
삼성 SDI	43	▼11.2
SK 이노베이션	18	▼9.2
LG 화학	24	▼2.0
포스코퓨처엠	18	▼10.0
두산에너지빌리티	60	▼6.1
Tesla	1,526	▼2.9
CATL	276	▼3.4
BYD	114	▼3.2
Fluence	4	▼12.7
Nuscale	4	▼17.6
Centrus	3	▼12.9
Cameco	44	▼11.5

도표1. 월간 EV 판매량 추이

(천대)		26.04	26.03	25.04	MoM(%)	YoY(%)	4Q25	1Q26	QoQ(%)
글로벌		1,311	1,386	1,116	(5.4)	17.5	4,512	3,340	(26.0)
지역별	중국	806	744	732	8.3	10.1	3,047	1,961	(35.6)
	아시아	108	143	62	(24.9)	72.5	287	331	15.2
	서유럽	168	239	114	(29.9)	47.3	476	420	(11.8)
	북미	89	100	112	(11.3)	(21.0)	332	252	(24.2)
브랜드별	폭스바겐	74	87	77	(14.6)	(3.1)	250	191	(23.6)
	GM	15	16	17	(4.3)	(11.5)	31	33	3.8
	테슬라	148	209	117	(29.1)	26.9	492	459	(6.8)
	BMW	36	43	33	(16.5)	7.3	107	93	(12.8)
	현대기아	56	63	41	(10.5)	36.6	103	142	37.4
	BYD	202	192	220	5.3	(8.2)	772	427	(44.7)
서유럽	폭스바겐	41	54	35	(25.0)	17.5	120	118	(1.6)
	GM	0	0	0	(90.0)	(50.0)	0	0	36.4
	테슬라	7	33	3	(80.1)	99.3	28	47	68.3
	BMW	15	19	11	(21.3)	40.7	49	39	(20.4)
	현대기아	14	17	9	(15.5)	56.6	28	36	28.8
	BYD	9	12	5	(25.7)	77.3	27	23	(15.0)
북미	폭스바겐	3	2	4	86.8	(32.7)	4	4	(4.0)
	GM	11	12	15	(7.1)	(29.4)	25	26	2.5
	테슬라	34	43	46	(20.3)	(26.9)	138	117	(15.0)
	BMW	3	2	4	36.1	(38.6)	12	5	(57.0)
	현대기아	7	8	7	(10.6)	7.7	14	18	32.2

자료: MarkLine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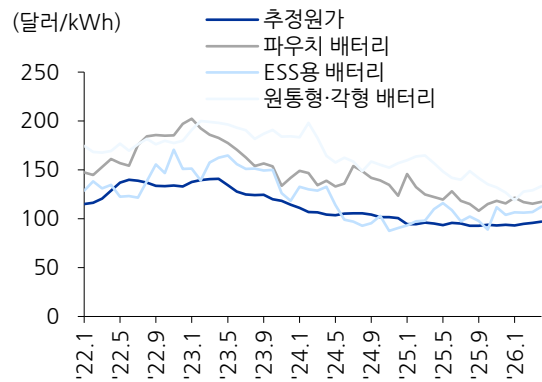
주: EV Only, 서유럽은 5 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기준

도표2. 월간 전력통계속보

	26.03			26.02			MoM(%)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합계	43,254	7,001	162	47,136	8,197	174	(8.2)	(14.6)	(6.9)
주택용	6,403	973	152	7,510	1,227	163	(14.7)	(20.7)	(7.0)
일반용	10,593	1,772	167	13,162	2,305	175	(19.5)	(23.1)	(4.5)
교육용	828	116	140	929	130	140	(10.9)	(11.1)	(0.4)
산업용	22,543	3,845	171	21,845	4,153	190	3.2	(7.4)	(10.3)
농사용	1,731	157	91	2,159	194	90	(19.8)	(18.9)	1.4
가로등	286	45	158	311	49	157	(7.9)	(7.8)	0.4
심야전력	872	92	106	1,220	140	114	(28.5)	(34.1)	(7.3)
	26.03			26.02			MoM(%)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합계	158,286	47,974	40.7	158,147	45,936	43.2	0.1	4.4	(2.5)
Nuclear	26,050	13,249	68.4	26,050	12,072	69.0	-	9.7	(0.6)
Coal	40,367	12,752	42.0	40,767	13,975	51.0	(1.0)	(8.8)	(9.0)
LNG	45,705	11,601	34.1	45,705	14,204	46.2	-	(18.3)	(12.1)
Oil	628	5	1.1	628	6	1.4	-	(16.7)	(0.3)
Water	6,516	501	10.3	6,516	454	10.4	-	10.4	(0.1)
Renewable	38,089	5,874	20.7	37,975	4,999	19.6	0.3	17.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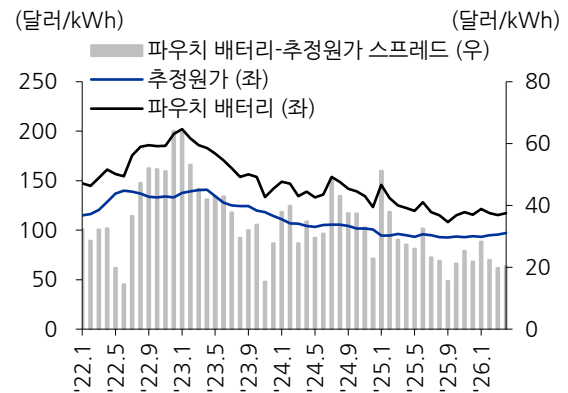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도표3. 배터리 가격 및 원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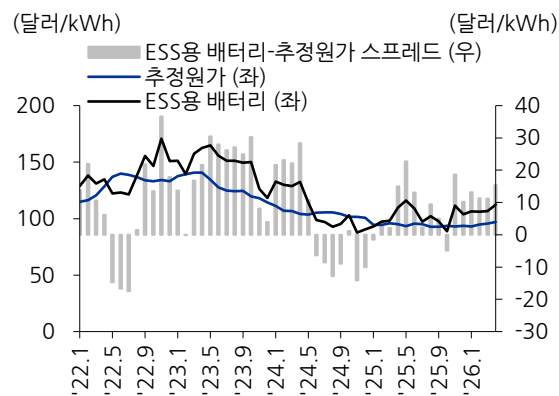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4. 파우치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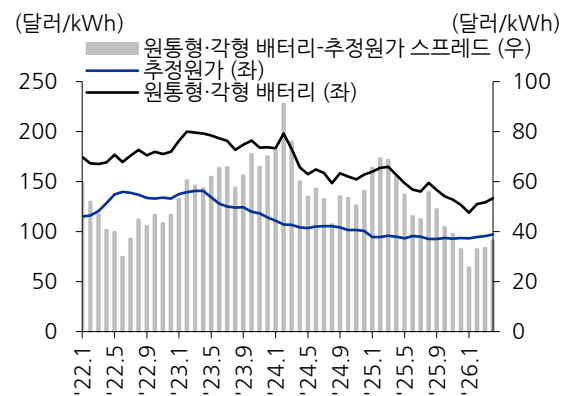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5. ESS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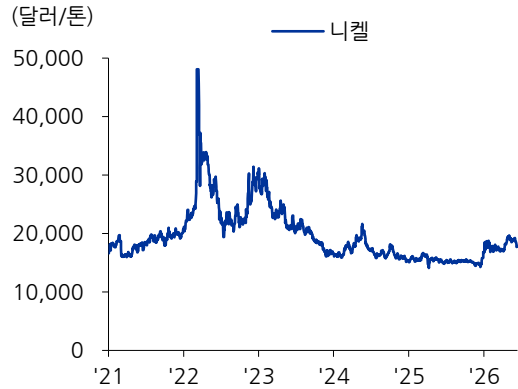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6. 원통형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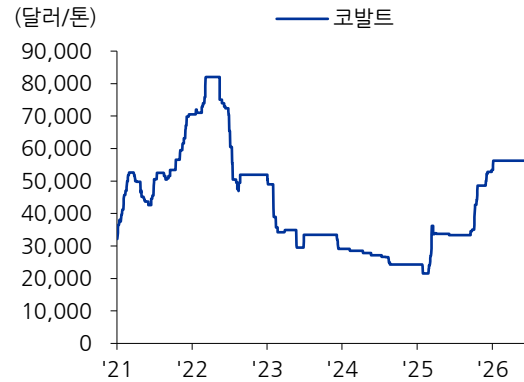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7. 니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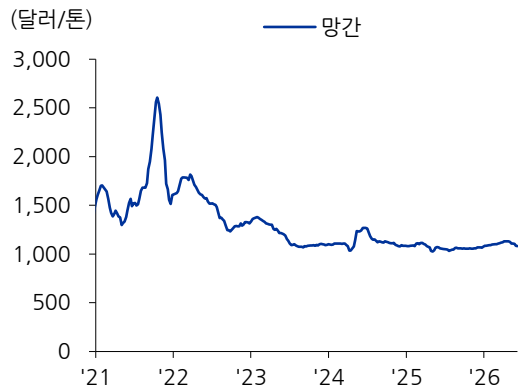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8. 코발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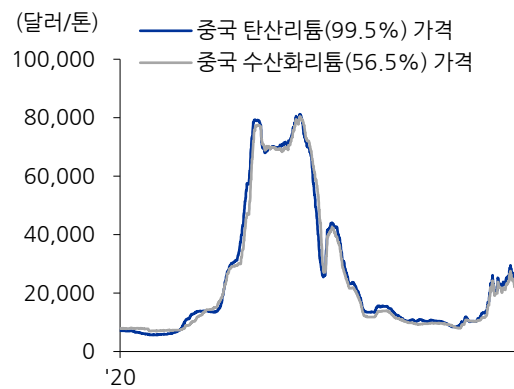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9. 망간 가격 추이



자료: KOMIS, 유진투자증권

도표10. 리튬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1.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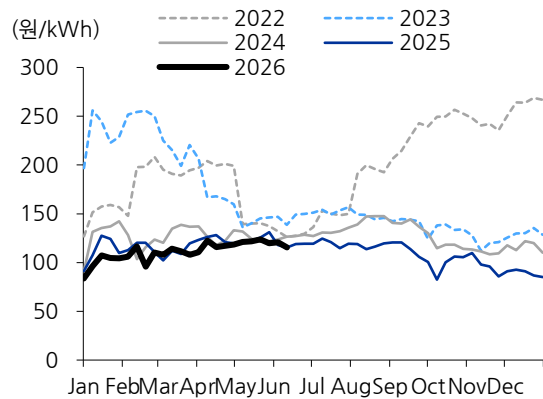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2. 구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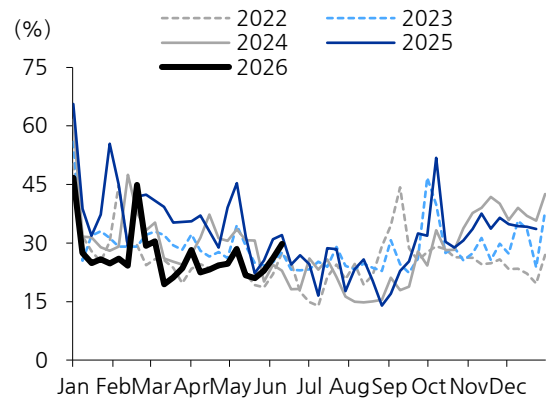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3. SM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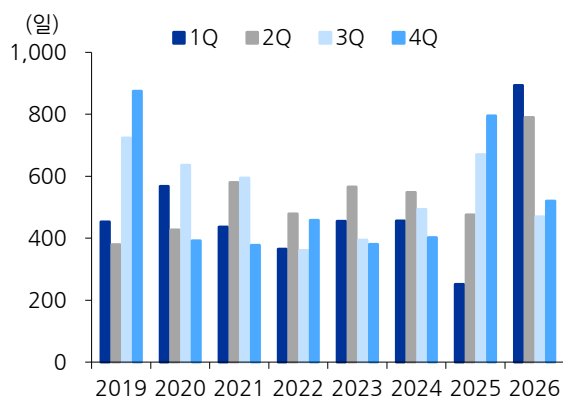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4. 주간 평균 전력공급 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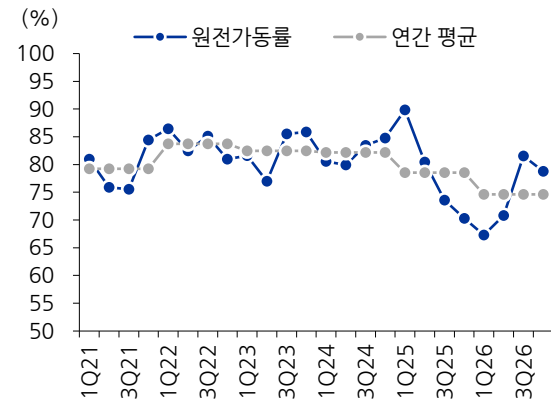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5. 원전정비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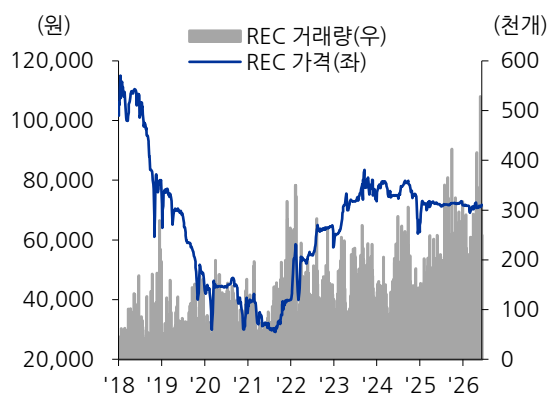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6. 원전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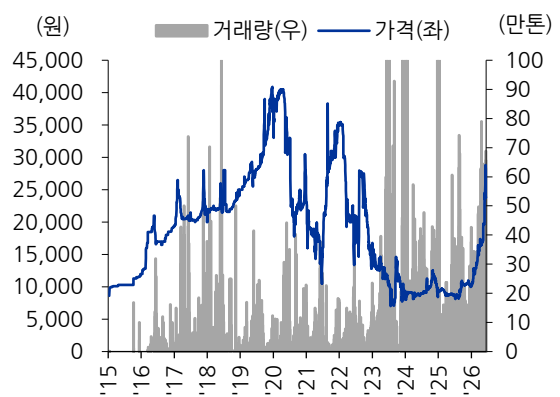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7. REC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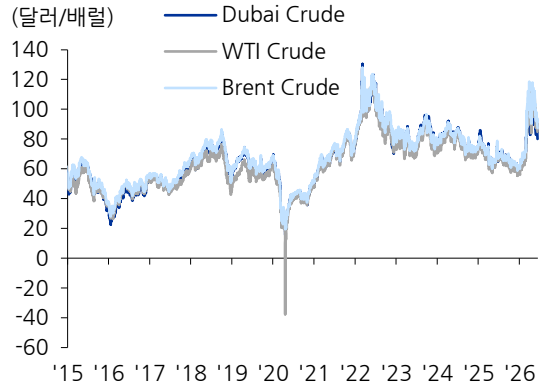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8. ETS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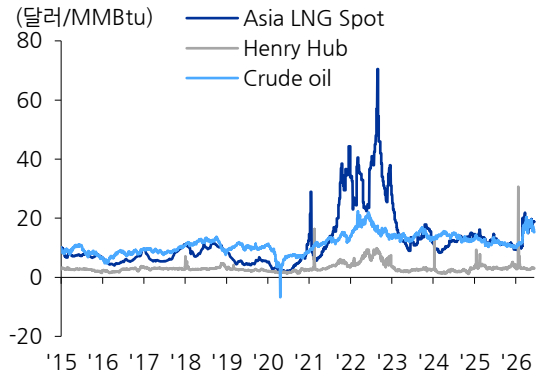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9.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0.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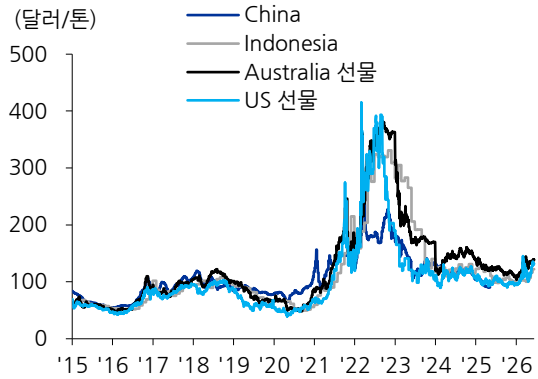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1.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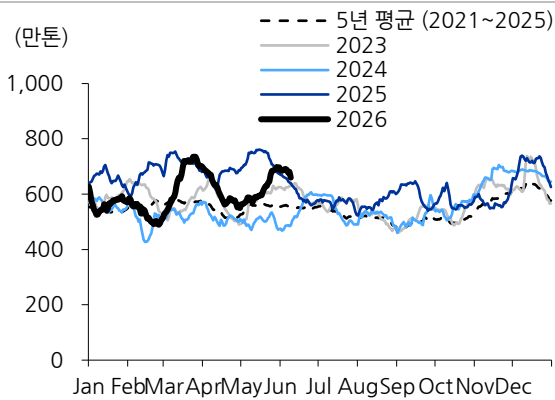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2. 지역별 석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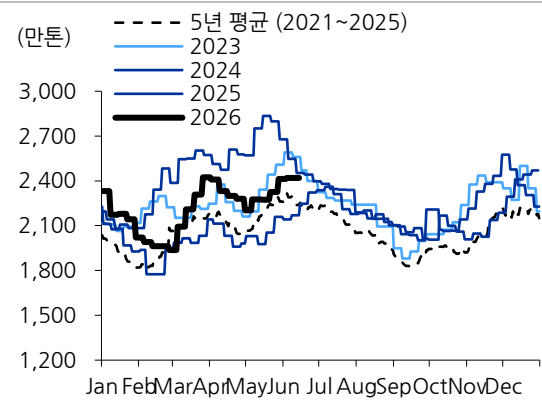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3. 중국 Qinhuangdao 항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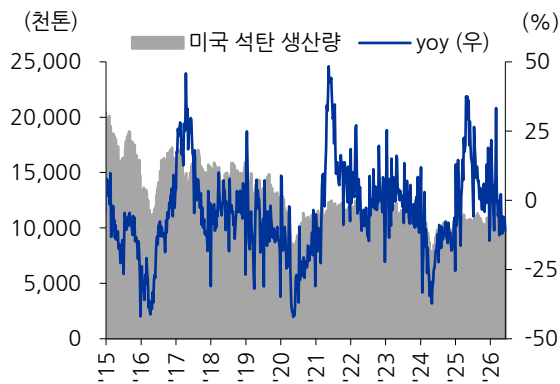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4. 중국 발전용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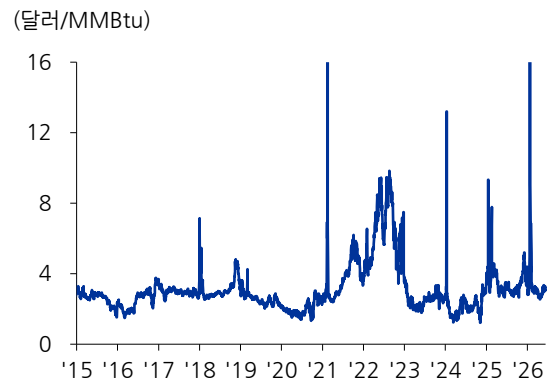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5. 미국 석탄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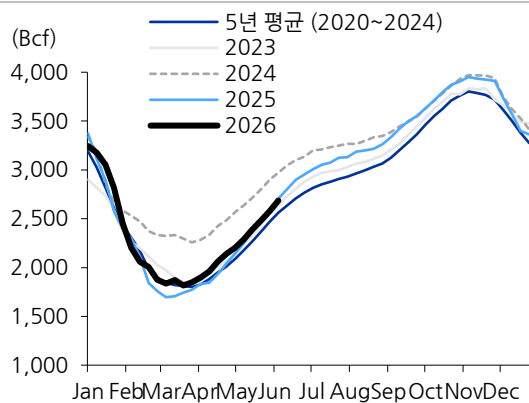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6. 미국 Henry Hub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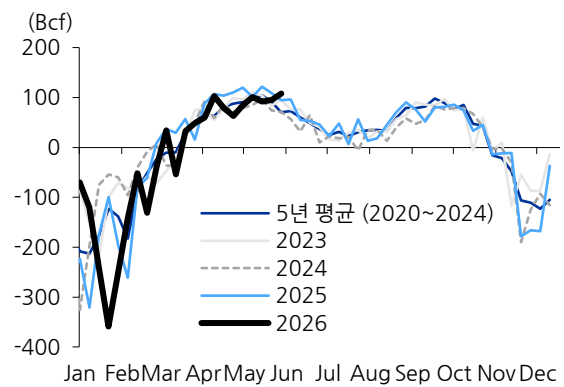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7.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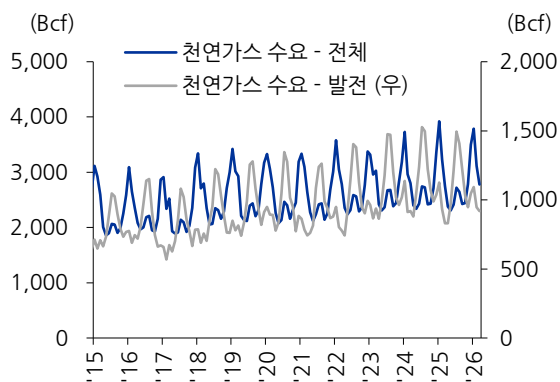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8. 미국 천연가스 재고 주간 변화량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9. 미국 천연가스 전체 및 발전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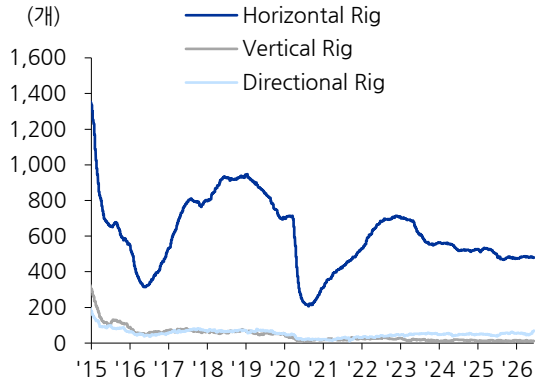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0.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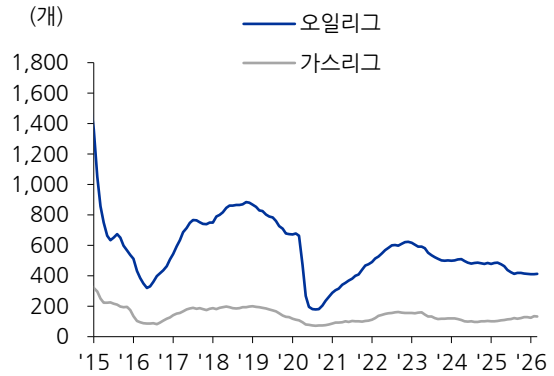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1. 미국 천연가스 시추 수평, 수직 리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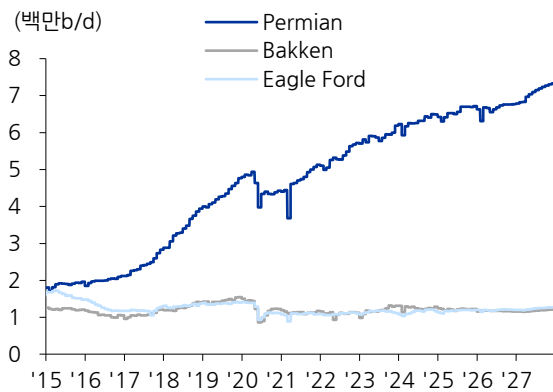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2. 미국 원유, 가스 리그 수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3. 미국 주요 셰일오일 생산량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4. 일본 원유 도입가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3.31 기준)